광양시, 토양검정 · 유용 미생물 공급 서비스 호응

경영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 원동력

광양시가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 유용미생물비료 공급 서비스로 농업인들에게 경영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원동력이 돼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친환경농업과 과학영농의 실천을 위해 종합검정실과 미생물비료 생산시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종합검정실 토양검정을 통해 분석 계획량인 3,100점을 초과한 총 3,878점을 분석했으며, 미생물비료는 공급 계획량인 40톤을 초과한 1,190여 농가에 총 46여 톤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토양검정은 3,100점, 미생물 비료생산은 고초균과 광합성균, 유산균 등 3종의 미생물을 활용해 4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많은 농업인들이 과학영농시설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등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방침이다.

허명구 기술보급과장은 "지난해 계획량을 초과할 정도로 최근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과학영농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양검정과 유용미생물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하거나 기술보급과(☎ 061-797-3560)로 연락하면 무상으로 시비처방서 발급과 농가당 200l까지 미생물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광양=김충권 기자

나주시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 가공아카데미 품평회

떡전문가 12명 · 반찬 및 간식 전문가 14명 육성…45종 시제품 선보여

나주시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이하 가공센터)는 지난 해 12월 28일, 가공아카데미 심화교육 수료식 및 품평회를 개최했다.

가공센터는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제품화하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기술적, 행정적 교육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2016년부터 총 310명을 대상으로 87회의 가공 관련 교육을 진행해온 가공센터는 현재는 설비 구축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연초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

올해 후반기 심화교육에서는 26명의 교육생이 배출됐다.

교육생들은 반찬 및 간식류와 떡 과정으로 나뉘어 각각 이경희 전 남도향토음식연구원장과 안원희 한국전통음식연구회 책임연구원으로부터 가공기술을 전수받았다.

교육생들은 각자 재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활용한 간식, 반찬, 떡 등 총 45종의 시제품을 선보였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이날 품평회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가공식품관련업종사자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평가 결과, 도라지정과, 꽃물김치, 된장깻잎장아찌 등의 반찬류와 당근컵케익, 설기떡 인절미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 소비자는 "농업인이 직접 만든 제품이라고 하기에 믿기 어려울 만큼 완성도가 높다"면서, "지역산 재료로 만든 더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주시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는 소비자 호응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적극 상품화에 나서는 한편 특색 있는 지역 가공 농식품의 발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 가공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은 가공센터(☎061-333-9086)에 연락하면 교육 내용, 일정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순천 · 여수 · 광양' 광역시내버스 개통

순천교통 차고지서 운행 개통식 개최

순천시는 광양만권 3개시(순천, 여수, 광양)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시내버스를 지난 1일부터 순천에서 여수시청까지 운행을 시작했다.

시는 2일 광역시내버스 개통을 축하하고자 조충훈 시장, 운수업체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순천교통 차고지에서 '순천~여수 광역시내버스 운행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서는 광역시내버스 안전운행 및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내부를 살펴보고 시승행사도 가졌다.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에서 지난해 10월 25일 3개 시장의 협약사항인 광역교통망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3개시를 연결하는 광역 시내버스 운행을 1일 시작했고, 광역시내버스 무료환승도 6월 이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순천시내버스는 960번을 달고 순천제일고에서 출발하여 순천역, 율촌면사무소, 여수공항을 경유하여 여수시청까지 하루에 5회 운행하게 되며, 버스 요금은 기본요금(1350원)으로 시경계외 추가요금 없이 여수시청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여수시내버스 330번도 여수 미평에서 출발하여 여수공항, 순천팔마경기장을 경유하여 순천역까지 하루에 5회 운행하게 된다.

순천과 광양 간은 기존 운행노선인 77번, 777번이 변경 없이 동일하게 운행하게 되며, 여수와 광양 간 광역시내버스도 이순신대교와 묘도를 경유하여 여수시청과 광양시청으로 610번(여수), 270번(광양)이 하루에 5회 운행한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농업인 새해 실용교육 실시

광양시는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농업인교육관과 읍·면·동 회의실에서 농업인 1,050명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FTA 확대와 경기침체 등 국내외 농업여건의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시의 특화작목인 감, 참다래, 생강, 매실 등에 대한 저비용 생산과 고품질 재배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 농가의 소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중점을 두고 농산물 저장과 가공, 유통, 판매 등 농업의 6차산업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술보급과 기술지원팀이나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시, 지난해 각 분야서 전국 최고상 휩쓸어

대외평가 7개 분야 54개 부문서 대통령상 등 수상

순천시가 지난해 일자리, 복지, 안전, 교통 분야 등 7개 분야 54개 부문에서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순천시에 따르면 일자리에서 6개 부문, 생활안전 5개 부문, 생태환경 4개 부문 등 54개 부문에서 수상을 해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 해였다고 밝혔다.

시는 청춘창고, 청춘웃장 등을 통한 청년 창업·창직과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 운행, 기숙사 지원 등 각종 환경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대상,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최우수상,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일자리 시책 우수상 등 3개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최우수상,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대상 등을 수상 일자리 5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양한 안전 도시 정책을 펼쳐왔다.

1385대의 CCTV 설치로 365일 24시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으며, 어린이놀이터와 공원 여자화장실 134개소 224대의 안심 비상벨 설치, 41개 전 초등학교에 비상벨을 설치했다.

시는 이러한 안전인프라 조성과 시민주도의 안전문화 운동으로 안전문화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베스트 통합관제센터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인정받았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농촌지역 마중버스 운행,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와이파이 및 휴대폰 충전기 설치 등 다양한 시설을 개선해 대중교통 시책평가 전국 최우수상,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19개 면·동에 통합사례관리사 및 방문간호사 배치로 주민 밀착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시민 1인 1나눔 계좌갖기 운동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했으며, 구석구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관·학이 협력한 보편적 복지 및 주민 주도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지역복지사업 평가 2관왕을 달성했다.

순천시 생태·문화적 브랜드 가치가 국내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인정을 받아 도시 브랜드가 상승 기류를 탄 한 해였다.

순천만보전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조성까지 생태계의 보전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원동력임을 보여준 생태보전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영국 환경청이 공인하는 국제적 환경상인 그린월드어워즈 금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16년에는 그린애플어워즈 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세계 그린대시로 임명되는 등 생태와 문화의 가치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푸드아트페스티벌이 2017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 축제리더 부문 도시재생 리더상을,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 대상, 농정업무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모든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8만 시민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 더 큰 순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